

제3장. 받침자모와 관련한 발음

제6항. 우리 말의 받침소리는 [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ㅇ]의 7개이다.

제7항. 《ㄹ》이 받침소리로 될 때에는 혀 옆소리로 발음한다.

례: — 갈, 갈매기, 놀다
— 달과 별, 말과 글, 쌀과 물, 얼른
— 갈라지다, 달리다, 몰리다, 빨래,
 쏟리다

제8항. 받침자모와 받침소리의 호상관계는 다음과 같다.

1) 받침 《ㄱ, ㄴ, ㅋ, ㆁ》의 받침소리는 무성자음앞에서와 발음이 끝날 때에는 [ㄱ]으로 발음한다.

례: — 녀살[노쌀], 늑다[늑따], 부억세
 간[부억세간], 낚시[낙시]
— 뭇[목], 닭[닥], 동노[동노], 밖[박]

그러나 동사나 형용사의 말줄기끝의 받침 《ㄴ》은 《ㄱ》앞에서 [ㄴ]로 발음한다.

례: - 맑고[말꼬], 맑구나[말꾸나], 맑
게[말께], 맑기[말끼]
- 붉고[불꼬], 붉구나[불꾸나], 붉게
[불께], 붉기[불끼]

2) 받침 《ㅅ, ㅈ, ㅊ, ㅌ, ㅍ》의 받침소리는 무성자음앞에서와 발음이 끝날 때에는 [ㄷ]으로 발음한다.

례: - 잇다[일따], 잣다[잘따], 닳줄[달
쫄], 발갈이[발갈이], 있다[일따]
- 옷[온], 젓[전], 꽃[곤], 물[문]

3) 받침 《ㄹ, ㄺ, ㅃ, ㅍ》의 받침소리는 무성자음앞에서와 발음이 끝날 때에는 [ㄴ]으로 발음한다.

례: 넓지[넙찌], 읊다[읍따], 었다[업따],
높다[놉따], 값[갑]

그러나 형용사말줄기끝의 받침 《ㄹ》은 《ㄱ》앞에서 [ㄹ]로 발음하며 《여덟》은 [여덜]로 발음한다.

례: 넓게[널께], 짹고[짹꼬], 얇기[얇끼],
섭게[설께], 땀구나[떨꾸나]

4) 받침 《ㄴ, ㄷ, ㄹ》의 받침소리는 자음앞

에서와 발음이 끝날 때에는 [ㄹ]로 발음한다.

례: - 굴빠지기[골빠지기], 핥다[할따],
 꿇느냐[골르냐], 울네[올레]
 - 돛[돌], 굴[골]

5) 받침 <ㄹ>의 받침소리는 자음앞에서와 발음이 끝날 때에는 [ㄹ]으로 발음한다.

례: - 젊다[점따], 젊고[점꼬]
 삶느냐[삼느냐], 삶네[삼네]
 - 고결한 삶[~삼], 죽음과 삶[~삼]

6) 받침 <ㄴ, ㄷ>의 받침소리는 자음앞에서 [ㄴ]으로 발음한다.

례: - 앳다[안따], 앳고[안꼬]
 엷게[언께], 엷느냐[언느냐]
 - 많다[만타], 많고[만코], 많네[만네]

7) 말줄기끝의 받침 <ㅎ>은 단어의 끝소리 마디에서와 <ㅅ>이나 <ㄴ>으로 시작된 토앞에서 [ㄷ]처럼 발음한다.

례: - 히읃[히읃]
 - 줄소[죇소→조쏘], 줄니[죇니→
 존니]
 - 놀네[논네→논네]